

	<h1>설 명 자 료</h1>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자	황재선 대리
		연락처	055)310-9014

13.7.30.자 「민원현장- 부산-김해경전철 홈 냉각 팬 레지오넬라균 감염 노출」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사항

□ 언론보도

- '13.7.30 영남매일, 영남방송
「민원현장- 부산-김해경전철 홈 냉각팬 '레지오넬라균 감염 노출」

□ 언론 보도 주요내용

- 부산-김해경전철이 시민들을 레지오넬라(Legionella)균의 감염에 노출시켜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 ※ 냉각 팬에서 나오는 바람에는 폐렴까지 유발하는 레지오넬라(Legionella)균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수시로 환경검체를 하고 있음.
 - ※ CNN 보도자료 인용(지난해 11월 캐나다 퀘벡시에서 레지오넬라(Legionella)균 감염환자가 집단 발생하여 10명이 숨짐)
- 경전철 이용 시민이 에어컨 냉각 팬에 의해 레지오넬라(Legionella)균 감염에 노출되어 질환을 기지고 있는 노약자와 면역력이 약한 아동 등의 사망사고의 위험에 노출됨.
 - 시민을 세균 감염에 노출, 세균 오염현장에 가두어 둠.
- 냉각 팬에서 나오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균체인 레지오넬라(Legionella)균에 대해 실내공기 등 환경검체를 실시하지 않음. 이유 불문하고 즉시 냉각 팬을 외부로 옮기고 실내 공기와 냉각수 검체실험을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밝혀야 함. 혹시라도 경전철을 자주 이용했던 노약자와 영유아 그리고 질환이 있는 시민들에게 레지오넬라 세균 감염 여부를 조사해야 함.

2. 부산-김해 경전철 설명 자료

□ 실외기를 통한 세균 감염(레지오넬라균 등) 가능성 없음

- 보도자료에 언급된 경전철 역사 내에 설치된 에어컨 냉각 팬은 역사내 기능실(신호통신기계실 등)의 향온환습기용 실외기로서 공기로만 열교환을 하여 습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레지오넬라(Legionella)균 등 세균의 번식 우려가 전혀 없음. 레지오넬라균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번식은 (대형)건물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등에 해당되는 경우임. 실외기의 점검 및 청소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향온환습기용) 실외기로 인해 이용 시민이 레지오넬라(Legionella)균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 실외기 위치는 승강장 종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승객의 이동 동선과 거리가 있어 배출공기가 직접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더운 공기는 실외기 공기 창문을 통하여 외기로 배출되고 있으나 승객의 쾌적성 및 편리성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을 검토 중임.

□ 또한 경전철에서 설치한 실외기는 환경검체 실시 대상 아님

-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향온환습기용) 실외기에 대한 환경검체와 관련하여, 환경검체 실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김해시 보건소 담당자 의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환경검체 시험대상이 아님.
따라서 부산-김해경전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된 (향온환습기용) 실외기에 대한 환경검체 시험과 오염여부 확인은 불필요 하며, 경전철을 자주 이용한 노약자와 영유아 그리고 질환이 있는 시민들이 실외기를 통한 세균 감염(레지오넬라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